

탐방 부산시청법우회



부산시청법우회는 불법의 실현을 통해 모범적인 공직자상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실행단체다. 97년 12월 피계사 성전암에서 간부수련회를 마친뒤 철충스님과 함께 했다.

공직사회 친절봉사상 심어

94년 창립...회원 500명

불우시설 방문·성지순례

‘세상살이에 곤란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게 되나니. 근심과 곤란으로 세상을 살아라.’

매달 부산광역시청의 컴퓨터 게시판에는 그 달의 법회를 알리는 법회안내문과 함께 함지박 일상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법회가 올려진다. 5백여명을 넘어선 부산광역시청 법우회 회원들은 이 법회안내문을 통해 법회참석의 마음을 다지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본다.

매일 셋째주 목요일에 법회를 가져 ‘목요일법회’라고도 불리는 부산광역시청 법우회는 94년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수행정진해 가정과 직장을 건강한 삶터로 만들고 공직사회에 불법을 전파하겠다는 다짐으로 발족했다. 22명의 불자가 뜻을 모아 시작한 작은 신행회에서 이제는 본청을 중심으로 각 구청에 지회를 두고 5백 여명이 활동하는

거대한 신행단체가 됐다. 부산광역시청 법우회는 그 규모의 거대함보다는 회원 개개인 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대민봉사하는 것을 곧 수행이라고 여기며 실행생활에 임하고 있다.

회장 최익두 교통기획과장은 “공직자들의 움직임은 곧바로 사회에 반영될 만큼 영향력이 크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리의 노력이 사회를 밝고 지혜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요일법회에서는 각 지회가 다 함께 모여 자체 법회나 봉사활동 등에서 체험한 회원들의 체험담을 나누며 실천적인 불교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상·하반기로 나눠 산사순례를 진행, 좀 더 깊이 있게 본성을 찾는 구도자가 되고자 한다.

부단한 정진을 통해 기복신앙을 탈피하고 각자의 자성을 밝히고 있는 부산광역시청법우회는 불우이웃사실 방문과 보시, 시민을 향한 친절한 봉사로 사회 곳곳에 향기를 심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교육 프로그램 운영” 45%

조계종 직장직능단체 현황조사 내용

월1회 이상 법회 76% “불교 생활화 한 몫” 사찰과 교류 50%...포교원 “연합회 유도”

직장직능 신행단체 중 기존 회원용 교육프로그램 및 신입회원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각각 45%, 37%에 그쳐 직장불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96년 조계종 중앙총회 포교분과위원회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단체가 정기법회(71.1%)를 주된 신행활동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성지순례(10.9%), 봉사활동(6.3%), 교리공부(4.7%) 등의 순으로 다양한 신행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영)이 5월 중순부터 한달 동안 전국 직장직능 신행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황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조사에 응한 단체는 1백29곳이다.

96년 포교분과위 조사결과와 인공 사찰에서 법회운영을 하던 단체가 극히 일부였던 반면 이번 조사에서

는 62개 단체(50.8%)가 주변사찰 법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집계돼 인근사찰과 신행단체 간의 활발한 교류 및 유기적 관계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내 공공시설과 자체법당을 이용하는 곳은 23개(18.9%)와 22개(18%) 단체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와는 별개로 모든 단체들이 자체 법당 마련을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각 단체가 법회를 보는 빈도는 월 1회 이상이 79%(1주 1회 12%, 2주 1회 6%, 월 1회 61%)로, 정기법회 병행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6년 조사 때는 월 1회 이상 정기법회를 병행하는 곳이 52%였다.

그러나 법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평균 30명에 머물러 절반에도 못미치는 회원이 정기법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회원들의 활동이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로 53%의 응답단체들이 회원의 참여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

항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회원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과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법회에서의 설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스님이 주도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83%)이었는데, 포교원 포교사단을 비롯한 재가법사들의 적극적인 투입과 활동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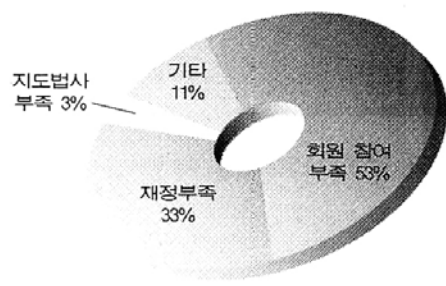
이와함께 지속적인 회원관리와 자체 회비 납입을 통한 자생력 확보가 법회운영의 관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활동 회원이 전체 등록 회원의 20~30%에 불과하고, 76%의 단체가 회사와 사찰의 지원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자체 수익사업이 없다고 응답했다.

수련회는 1년에 1~3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41%였으며, 수련회 내용은 큰스님 설법(57.3%), 절수행(37.8%), 참선(30.5%)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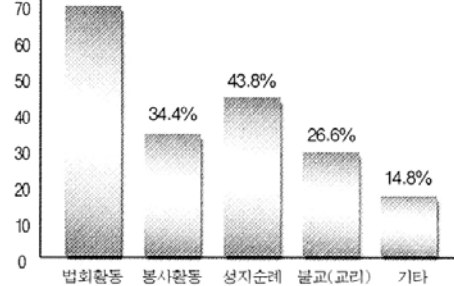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포교원은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네트워크 형성 필요 △종책적 접근을 통해 조직유지 및 연합회 결성 유도 △다양한 신행프로그램과 활동의 개발 △회원 교육체계와 자생력 확보 등은 중반과 각 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단체의 애로사항



◇단체의 주요 활동



불출협 제1회 도서전시회

불교출판협회(회장 원택스님)는 12일부터 19일까지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제1회 불교도서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회 오프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불교출판협회회장 원택스님을 비롯 대한출판문화협회장 나춘호,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윤정광, 불교TV사장 허문도, 정병조 동국대학교수 등 교계출판사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했다.



철보사 남전스님 63주기 추모제

철보사(주지 오철)는 1일 도봉 석주 성일스님 등과 함께 선학원 중앙선원을 창건한 남전한규(南泉翰圭) 스님 63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철보사 조실 석주스님을 비롯 문도들과 신도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석주스님은 이날 추모사를 통해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위해 전심전력했다”며 남전스님을 회고하고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응맹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사단법인 좋은벗들 창립법회

사단법인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은 16일 정토회관 3층강당에서 진월스님(동국대교수) 서영훈(제2건국위원장) 이장호(서울대학교수) 서경석(목사 김명현(목사 박정수(목사 김귀옥(서울대학교수) 최형록(한국노동연구원)씨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졌다. 법륜스님은 “좋은벗들”은 한민족 화해와 통일, 나아가 국제평화와 난민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서화합불교운동본부 부산법회

동서화합불교운동본부(상임집행위원장 진관스님)는 14일 부산 강로사에서 동서화합을 위한 1차 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진관스님은 “부산불자들이 나서 동서화합을 위한 1만번 열불결사를 펼쳐라”며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을 우리 시대에 실천하는 운동으로 일으켜 동서가 화합하여 통일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정기법회

금융감독원불교회(회장 홍순우)는 25일 오후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에서 법회를 연다. 10여명의 회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법회를 여는 금융감독원불교회는 이날 법회에서 예불은 물론 각 회기간 신행이야기를 나누며 신심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02)3771-5191 백명현

과천 정불회 법학강좌

과천종합정부청사 불교신행회 정불회(회장 강경수)는 25일 오후 청사 5동 지하 상황실에서 <묘법연화경> 강좌를 연다. 김경호 지도도법사(경생불사회 회장) <묘법연화경>을 강술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2)504-5143 장재균

우리 모임에선

수원 불심회 자원봉사

수원교도소불심회(회장 고양식)는 26일 오후 1시30분부터 9시까지 동지소년의 집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 불심회 직원들과 경교대(교도소 경비대원) 등 20여 명이 참여할 이번 자원봉사에서는 세탁 및 제조작업, 막힌 하수구 뚫는 일 등을 할 예정이다. (0331)211-1285

개인택시정법회 정기법회

개인택시불교정법회(회장 류지순)는 24일 오전 11시 헤림원에서 정기법회를 연다. 이날 법회에서는 대성사 주지 설호스님이 법문

한다. (053)764-0766

KBS불자회 26일 모임

KBS불자회(회장 백영석)는 26일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6월 정기모임 및 법회를 갖는다. (02)781-2481

금오복지관 직장인 강좌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교양강좌가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에서 열린다.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피부메이크업반과 한식조리사반을 개설하고, 2개월 과정으로 운영한다. 메이크업반은 매주 수요일 오후7시~9시, 한식조리사반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7시~9시 열린다. (0546)45-0230

불교언론인회 광주전남지회 창립



불교언론인회 광주전남지회 창립

불교언론인회 광주전남지회가 부산·경남, 대구·경북 지회에 이어 3번째로 창립됐다.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 광주전남 지회가 창립됐다. 한국불교언론인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이춘성) 광주매일신문 부장은 4일 광주 무각사에서 언론인 불자와 광민스님(무각사 주

지), 김두원 광주전남 불교신도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갖고 정식 발족했다. 부산경남지회, 대구경북지회에 이은 3번째 지회가 되는 셈. 광민스님은 법회에서 “불자언론인으로서 언론을 개도하고 불교의 권익옹호 및 발전에 힘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이춘성 회장을 비롯 이두현 전남매일신문 부장과 양봉도 광주불교방송 기자가 각각 부회장과 총무로 선출됐다.

한마음선원 범형제 수련회

한마음선원 본원 범형제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련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수련회 주제: “마음공부 어떻게 해야하나”
2. 일 시: 1999. 6. 26(土) 17:30~6.27(日) 14:00(1박2일)
3. 장 소: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4. 참가자: 범형제 회원
5. 준비물: 회원증, 간편복, 운동화, 세면도구, 필기도구
6. 문의처: 선원사무처 0343-470-3100 범형제회 총무 011-794-6365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범형제회 회장 명을식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린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약용성분의 성분이 신린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줍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을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대이가 임의의 때를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린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몸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통·기미 33세전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하여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페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라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매달되는 증상에 (○) 맞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뒷덜이 고통스럽다
11. 매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담뇨나 감성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